

국내에서도 IT 특성화 대학으로는 최고를 자부하는 광운대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에 있어 IT기술이라는 튼튼한 배경을 뒤로 하고 있는 광운대에 前 KT사장과 前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상철 총장이 취임하면서 유비쿼터스 캠퍼스 기반 구축을 위한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우·리·대·학

전자정보통신 특성화 국내 대표 대학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동북아 IT 최강대학을 꿈꾼다! 광운대학교

광운대는 1934년 '조선무선강습소'를 시작으로 1962년 한국 최초의 전자통신기술전문대학 '동국전자공과대학', 그리고 지금의 광운대로 탈바꿈하기까지 한국의 전자공학과 IT기술을 이끌어왔다. IT기술을 선도해온 광운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KT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 총장의 경력이 만난 지 2년이 넘는 지금, 광운대는 '유비쿼터스 선도 대학'으로의 도약기에 접어들었다.

국내 최초 전자공학과 개설 등 전자공학 인재 양성의 산실 구실을 해온 광운대는 2001년 IT 분야 학과와 전공을 따로 모아 전자정보공과대학을 신설하는 등 'IT 특성화 대학'이라는 입지를 다지는 데 힘써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 최우수 대학으로 두 차례 뽑힌 것은 물론, 교육과학부의 실험기상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최근 좋은 평가가 쌓이고 있다.

광운대학교는 작은 학교다. 하지만 한국에서 'IT' 하면 광운대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실력과 가능성만큼은 큰 대학들에 못지않다. 광운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14년까지 동북아 최고의 IT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에 걸맞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상철 총장

의 진두지휘 아래 유비쿼터스 기반환경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운대는 이러한 노력들이 광운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광운대가 지금까지 개척해왔고 앞으로도 개척해갈 유비쿼터스 기술은 한국 대학, 한국 사회 전반, 그리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첨단' 기술이기 때문이다.

광운 비전 2014

전자정보통신 특성화 국내 대표 대학인 광운대는 대학 창립 70 주년을 맞이하여 2004년 5월에 선포한 「광운 비전 2014」에서 “동북아 IT 최강대학”을 장기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국내 IT분야 선두주자에서 이제 동북아 IT 최강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비전 2014의 핵심은 그 동안 축적된 IT분야 인프라를 적극 활용, '동북아 10대 IT대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해 광운대는 우선 교육부문에서 창의적 전문인 양성, 연구부문에서 실천 지향적 결과물 생산, 행정부문에서 고객 만족도 극대화 등 영역별 성취목표를 세웠다. 광운 비전 2014는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교육을 통한 특성화, IT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세계중심이 되는 교육·연구·행

정 구현을 통한 세계화를 토대로 삼고 있다. 아울러 'IT is Kwangwoon', 'It is Kwangwoon'을 캐치프레이즈로 10년 동안 추진해야 할 40대 과제 '1040프로젝트'를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다.

광운대학교가 시작한다!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 최초!

광운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전자공학부를 개설한 대한민국 전자공학의 효시이자 요람이다. 여기에 2008년 동북아대학과 과학기술법학과를 신설하여 시대의 흐름에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광운대는 동북아 IT 최강대학을 지향하며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1) 방위사업학과

방위사업학과 협동과정은 2007년 2학기부터 컴퓨터과학과, 경영정보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전파공학과, 경영학과의 5개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국내 최초로 개설되었다. 2006년 1월 제정된 방위사업법에 의거 동년 동월에 방위사업청이 신설되어 방위력 개선사업, 방위산업육성 및 국방과학기술 진흥 업무가 방위사업청으로 통합. 방위사업의 특성상 첨단 기술의 활용과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학문적 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절실한 현실이다. 이에 방위사업학과 석사 박사과정 설립을 통해 국방 IT분야의 학문적 발전은 물론 우리대학의 대외 인지도 향상 및 교내 연구진들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과학기술법학과

광운대 법학부의 과학기술법학과는 현대 과학기술(특히 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와 건설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과로 국내 최초로 특성화된 학과이다.

과학기술법학과에는 IT법무분야와 건설법무분야가 있으

며 입학 때부터 과학기술법학과로 지원, 입학하여 1학년 때에는 일반 법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주요 법학과목을 배우고 2학년 진학 시에 IT법무분야와 건설법무분야를 선택하여 수학을 할 수 있다.

3) 동북아대학

광운대 동북아대학은 21세기 동북아시대를 맞아 동북아지역의 통상·문화·국제협력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국내최초로 동북아지역에 특화된 단과대학이다.

동북아대학은 세계3대 축으로서의 '동북아'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기존의 국제통상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를 통합하여 새로운 학문적 틀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동북아 통상학부(한일통상전공, 한중통상전공), 동북아 문화산업학부(문화교류전공, 문화콘텐츠개발전공), 국제협력학부(국제관계전공) 3개의 학부가 설치된다. 광운대 동북아대학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통상·문화·국제협력 분야에서 어느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한국대학 내에서의 새로운 시도로 기대되고 있다. 동북아대학은 한미 FTA의 출범과 더불어 유망 직업 군으로 부상될 국제협상전문가, 국제무역전문가, 해외영업전문가, 한류를 비롯한 문화전문가 등을 배출함으로써 높은 취업률이 예상된다.

4)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대학원은 건설법무 전문인력양성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광운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건설전문 언론인 '일간건설신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내 건설법무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건설법무대학원은 살아있는 실무 중심사례의 교육과 품격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건설법무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초빙하였으며 또한 건설현장의 CEO, 전문법조인, 의회의 건설부문 전문가, 행정부 건설부문 최고이



▲ 로봇 창단식 모습



▲ 로봇 단원들의 이론관련 세미나 모습

론 및 실무정책분야 책임자들로 구성하였다. 교과과정은 현장의 모든 문제를 망라한 문제와 실전사례 중심의 교과목들이다.

건설법무대학원은 건설법무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건설법무분야의 전문가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역할을 수행, 건설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며, 또한 건설법무분야의 정보들이 집적되고 발표되고 생성되며 교류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이다.

5) 광운대 로봇게임단 '로봇'(Ro:bit)

광운대학교는 2006년 11월 세계 최초로 대학생 로봇게임단을 창단하였다.

단장(최창호 학생복지처장), 부장(김진오 교수), 로봇파일럿 14명으로 구성되어 창단 이후부터 60여 개의 국내외 대

■ 2007년 주요 수상 실적

- 05월 <제4회 대한민국로봇대전> 대상 및 은상
- 07월 <슈퍼로봇그랑프리 대회 시즌 2> 준우승
- 09월 <제3회 아시아로보윈 대회> 통합 우승 및 경량급 준우승

■ 2008년 주요 수상 실적

- 06월 2008 ROBOGAMES(로봇관련 세계대회) 금메달 총6개 획득, 종합 세계 2위

회를 휩쓸며 국내최강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광운대학교는 선수단 전원에게 대학 4년 전액 장학금 및 로봇 제작비용 지원, 활동공간제공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입시부터 전국 로봇대회 입상자를 IT특기자로 선발하고 있다.

발로 뛰는 대학 총장 - 광운대 제7대 이상철 총장



지난 2005년 10월 9일 제7대 광운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한 이상철 총장의 취임 후 행보가 다른 대학 총장과 확연히 비교되고 있다. 6년여 간의 KT 및 KTF CEO 활동과 제8대 정보통신부

장관 역임 등 이상철 총장의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기에 임기의 반 이상이 지난 요즘 그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IT 전문가인 이상철 총장은 광운대를 IT에 강한 글로벌 대학'으로 재 탄생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취임 초기의 다짐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평이다.

■ 이상철 총장의 'CEO 총장론'

광운대 이상철 총장은 'CEO 총장론'을 제시한다. 'CEO 총장론'의 핵심은 총장의 업무실적을 기부금 유치액수에 비교하는 추세를 경계한 것이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주요 기업출신 경영인을 영입, 학교운명을 맡기고 있다. 이는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대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부금유치에 뛰어들면서, 풍부한 인맥을 자랑하는 CEO출신 인사가 유리할 것이란 전략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 총장은 "CEO총장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기업을 찾아 다니며 기부금을 바라는 시대는 이젠 지났다"고 말했다. 기업체 입장에서든 굳이 '이윤'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대학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전략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재임 중에 학교를 확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기부금 유치가 대학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출발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성·차별화 한 연구프로젝트를 기업과 공동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스킨십 행정으로 학생과의 간격 좁히는 이상철 총장

이상철 총장은 2005년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취임식 날 교내에 바비큐 파티를 준비해 부인과 함께 학생들에게 나눠주어 화제가 되었고,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도서관 앞에서 학생들에게 손수 캔 커피를 나눠주는가 하면 외국인 학생들에게 떡국파티를 열어주어 타향살이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등 '배려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생들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는 학생들과 함께 폭지점 댄스를 추기도 해 학생들로부터 '총장 오빠(형)'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06년부터 '광운 디지털 페스티벌'을 테마로 이어지는 광운대 축제는 광운대의 특성을 가장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축제 기간에 학교에 '광운 드림트리(Dream Tree)'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소원을 적어 리본을 나무에 매달면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이상철 총장이 그 중 몇 개를 뽑아 소원을 이루어주는 행사도 마련되어 학생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처럼 IT리더 이상철 총장은 오늘도 광운대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동북아 IT 최강대학, 광운대학교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축제 중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는 드림트리(Dream Tree)